하나님 버리기의 ‘현실감’

(사무엘상 8:1~22)

1.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버리기의 ‘현실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버리기의 ‘현실감’

“버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한 대표적 사상가는 노자를 들 수 있고, 실천하며 산 인물로서는 마하트마 간디를 들 수 있으며,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돌아가신 법정 스님은 버림의 미학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이러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던 모습이 기독교 안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울 정도로 이 시대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버림의 미학은 단순하게 사상적인 영역에서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큰 덕목이 된다고 합니다. 기업을 위한 전략을 세울 때에 버림의 미학을 모르면 전략은 낭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버림의 미학 추종자였다고 합니다. 애플이 도산 위기에 있었을 때 구원 투수로 등장하여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역설하며 애플을 구원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버림의 미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버림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인데 버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천하기 이전에 가짐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즉 버림

의 미학은 이미 가진 것을 의도적으로 결단하여 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버림의 미학 이전의 상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버리려면 가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가질 때에 이미 버림은 일어난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데 버림이 없이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과 결혼을 윤리적인 가치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형식적인 면에서 들여다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버리기인데 이혼은 아내 버리기 남편 버리기입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고 부모님이 정략결혼을 시킨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혼하기 위한 전제로서 결혼을 통해 가질 때에 이미 버려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략결혼을 위한 상대를 갖기 위해 원래 애인이었던 여자를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버림의 미학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이미 가질 때에 잘못 버린 것이 있기 때문으로 여기서 이혼의 이유는 버림의 폐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이야기할 때에는 세상 것들을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사실은 세상 것들을 마음에 가질 때에 이미 한 번 버린 적이 있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림의 미학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버리거나 가지는 것이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져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가져야 될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잘못된 것을 가진 뒤에 치료 차원에서 버리는 것은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가져야 할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버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르겠지만 논리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아내로 가져야 할 여자를 버리고 지금의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버림의 미학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버렸던 그것을 되찾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려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위치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분을 사모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마음 안에 무언가를 들여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가져야 할 분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진 상태에서, 본래 가져야 될 존재인 하나님을 갖지 않고 단지 잘못 가진 것들을 버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빈 채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체제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체제로의 전환점을 이루는 본문으로 우리의 생각에 급격한 제동을 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왕정체제'는 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든지 어차피 다스림을 받는 것은 동일한데, 그 제도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정제도를 요구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달라는 것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이 왕정제도를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이유도 실제로는 이방나라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려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현실감(現實感)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실'이라는 단어를 보면 '현(現)'이라는 글자는 임금 왕(王)옆에 볼 견(見)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王이 아닌 구슬 옥(玉)이고 볼 견(見) 또는 뵈올 현(見)이 합쳐져서 나타난 글자입니다. 이 현(現) 자가 볼 견(見)이지만 '본다.'는 뜻의 시선(視線), 시각(視覺)의 볼 시(視)는 내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반대로 볼 견(見)은 저쪽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슬 옥(玉)이 붙은 것은 옥을 갈 때 빛이 나는데 저쪽에서 보인다는 뜻의 볼 견(見)을 붙여 현실의 현(現)자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내 눈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슬만 보이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實)'은 갓머리 변(宀)이 '집안'이라는 뜻에 꿸 관(貫)자가 붙은 것인데, 금은보화를 가득 꿰어놓은 것이 집안에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實)은 내 마음에 가득 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現實)은 옥을 갈았을 때 빛이 나는 것처럼 주변의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대상만이 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긍정적으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부정적으로는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원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항상 빛이 나면서 주변의 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면서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상태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현실감인 것입니다. 이 현실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를 보면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이 열려서 보좌가 보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예수님)를 보았습니다. 옥을 갈아서 빛이 나는 것처럼 하늘이 빛이 나면서 마

음을 다 차지하게 되므로 그 빛에 가려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기는 어둠에 묻혀버리게 되는데 이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현실은 하늘입니다. 베드로가 내일 참수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깊이 잡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일어나 걷는 중에도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마음에서 빛을 내며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하늘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현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일 죽는 사실조차도 그 빛에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빛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마음을 차지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 현실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나라들과 싸우며 그들의 왕을 보고 왕에 대해서 빛이 났던 것입니다. 왕의 존재가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볼 때에 왕이 없음이 가장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뽑힌 왕이 없는 것이 크게 빛나면서 현실이 되므로 하나님의 계심은 어둠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나면서 내 마음과 시선을 차지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한다면 돈 없는 사실이 현실이 되어서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現)은 옥을 갈아 빛을 내듯이 눈에 띄는 것이고, 실(實)은 집안을 보석이 가득 채우듯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빛을 발하여 밤새도록 돈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고, 다른 사실들은 완전히 어둠 속에 묻혀 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돈, 건강, 자녀, 승진, 인간관계 등의 모든 문제들이 빛을 발하며 눈에 띄어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 부정적인 빛인 걱정, 슬픔, 번민 등과 긍정적인 빛인 기쁨과 좋아함 등의 모든 것들을 그늘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시선에 따라 빛을 발하는 것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만이 빛을 발하도록 하여,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늘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이 현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이 자꾸만 눈에 띕니다. 빛나는 옥처럼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 가고 실(實)이라는 한자가 뜻하는 바대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비전이든 꿈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아서 매 순간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들에 마음이 끌리도록 형성이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체질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그대로 끌려가서 하나님은 매 순간 버려지고 맙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현실이 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현실이 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현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이 세상이 어둠 속에 묻혀버릴 때에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세상 속으로 질서와 빛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감을 들여다보며 하나님만을 현실로 만들어서 하나님 버리기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에게서 버려지심을 당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 전체가 내 마음에서 어둠 속에 묻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빛나는 현실이 되게 하셔서 어둠 속에 묻힌 세상에 하나님의 광명한 뜻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